

LOCAL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영광 안마해상풍력, 군민과 상생모델 구축한다

여수, 소비쿠폰 사용 독려 민관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

여수시는 최근 시 직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상인회, 한국부인회 여수지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쌍봉시장 일대에서 민관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에도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소비촉진주간에 시 직원들과 소비자 단체가 앞장서 지역 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부서와 관계 기관, 자생단체에도 조기 사용과 소비운동 참여를 적극 독려해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1일 최정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팀(TF)을 구성, 시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도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성호 편의점 운영자 모집 28일까지...내달 최종 결정

장성군은 장성호 수변길 출렁길 편의점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출렁길은 수변길 입구에서부터 도보로 20여분, 약 1km 떨어진 열로호 출렁다리 시작점에 있다. 인근에 화장실과 전망대 등이 있어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모여드는 곳이다. 편의점 운영 목적으로 조성된 지상 1층 가설점포로 50㎡ 규모다.

모집공고 기간은 27일까지다. 매장 위생점검·관리, 합리적인 가격 확보를 위해 편의점 전문브랜드(프랜차이즈)와 계약 또는 가계약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장성군에 3년 이상(2022년 7월 28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로 재무능력을 갖추고 신용평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입찰 참가 신청서는 오는 28일 장성군 관광과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군은 9월 3일까지 가격입찰을 갖고, 이를 뒤인 5일 최고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장성=이행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유지보수센터 건립·지역민 우선 채용 등 동반성장 제안 산업·관광·소득 순환도시 조성...“지속적 발전 이어지길”

영광 해역에 풍력발전을 추진 중인 안마해상풍력이 지역 어업인과의 상생을 위한 장기 협력 모델을 설계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18일 안마해상풍력에 따르면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서측 해역에 14MW급 해상풍력 발전기 38기를 설치하는 총사업비 4조5000억원의 에너지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안마해상풍력은 2022년부터 민관협의

체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영광군 어민회와 의공식 협상, 영광군 주최 간담회 등 30회 이상의 대면·비대면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이행에 그치지 않고, 어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상생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개최된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된 영광군 어업인 협의체와 안마해상풍



사진은 안마해상풍력 조감도.

력 간의 첫 공식 보상 협의 자리였다.

안마해상풍력은 사업 일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어선과 어업허가 1척당 2000만원 수준의 보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실

질적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어선 1척당 5000만원의 보상을 주장하며 협의가 난항을 겪었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안마해상풍력은 단기 보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업인과의 장기적 동반 성장을 위한 주민 참여형 수익 모델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광군 내 유지보수(O&M) 센터 건립, 해상풍력 유지 관리 거점 기지 견학 관광 콘텐츠,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이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이라는 미래 자산을 지역 관광 자원으로 재해석하면서 산업과 관광, 소득이 순환하는 새로운 지속 가능

도시 모델을 시도 중이다.

어업인은 공익 수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 형태의 연간 안정적 수익과 관광 차별화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마해상풍력은 앞으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어업인 단체와의 협의에 임할 것이며, 영광군 주도로 신뢰와 합의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마해상풍력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협의로 지역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싶다”며 “이 과정이 영광군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은빛 물결 펼쳐진 함평천 팜파스 꽃길 함평군의 숨은 관광 보석인 함평천 팜파스 꽃길이 올 여름에도 장관을 이루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함평천 일대를 중심으로 꽃길을 조성, 현재는 약 2.4km 길이의 팜파스그라스 산책로가 절정을 이루면서 함평천과 어우러져 마치 유럽의 자연 속을 거니는 듯한 감성을 선사하고 있다.

빛가람 복합시설 시민이 이름 짓는다

나주, 31일까지 상징성·친근함 담은 명칭 공모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모내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심사 기준은 시설의 성격과 기능에 어울리면서도 친근하고 호감 있는 이름이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정된 최우수작에는 50만원, 우수작 30만원, 장려작 10만원 상당의 나주시상품권이 지급되며 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두 시설은 나주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복합공간이자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되는 상징적인 장소다”며 “시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제안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명칭 공모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나주시 회계과 복합시설운영TF팀으로 하면 된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 도 기념물 지정 광복 80주년 맞아 흥양 의병부대 발자취 재조명

고흥군은 ‘고흥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이 전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국가유산 지정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에 남아 있는 항일독립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민족의 얼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흥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은 고흥의 대표 명산인 팔영산 기슭, 흔들바위 인근에 위치한 능가사의 산내 암자 터다. 지형적으로 험준하고 은폐방어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1909년 한말 전남지역 의병부대의 주둔지이자 전투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만경암 일대는 흥양 의병부대가 일본군과 맞서 치열하게 저항한 전투 상황이 문헌에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어, 당시 의병 활동의 실체를 생생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성과 장소의 전략적 가치가 인정돼, 이번 기념물



팔영산 전경

지정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전국 각지에서 항일 의병이 봉기하는 가운데, 고흥 지역에서도 팔영산을 중심으로 의병 무장투쟁이 전개됐다. 당시 고흥에서 활동하던 신성구 의병대장은 120여명의 의병부대를 조직해 만경암에 주둔하며 항일 활동을 이어갔다.

군 관계자는 “항일 의병 전적지의 보존과 정비를 포함한 다각적인 훼손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의병자료 수집 및 구체적인 전투 기록 등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역사적 증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완도, 주민 주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가속화

완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 70억원(국비 49억원, 군비 21억원)을 투입, 2026년까지 완도형 농촌 치유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22년 10월 기본 계획 승

인, 지역 유무형 자원과 주민 조직을 연계한 치유산업 거점 조성·인재 양성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신활력 플러스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219명이 수료했고, 지역 활동가 모임 5개소를 법인화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 6개소, 비사회적 경제 조직도 9개소를 발굴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VITAMIN HOUSE

VHCME+

특허등록번호 10-1772010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플랫폼

1.5g

K-낙산균 200 mg, B555당화균 200 mg, 보툴리눔 100 mg, 유산균 15 mg

저장방법: 2~8도 냉장보관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VHCME+

특허등록번호 10-1772010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플랫폼

1.5g

K-낙산균 200 mg, B555당화균 200 mg, 보툴리눔 100 mg, 유산균 15 mg

저장방법: 2~8도 냉장보관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피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